

'라건아 28점' KCC, 오리온 꺾고 개막 첫승



프로농구 전주 KCC 라건아가 상대 골밑을 파고들고 있다. (제공=KBL)

프로농구 전주 KCC가 고양 오리온을 꺾고 개막 후 첫 승을 신고했다.

KCC는 11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오

오리온 한호빈, 22m 장거리 버저비터

DB, 현대모비스에 82-77 역전승...2연승

리온과 경기에서 92-79로 승리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창원 LG와 홈 개막전에서 패한 뒤 2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다. 반면 오리온은 개막 후 2연패에 빠졌다.

KCC에선 라건아가 28점 11라운드 더블 더블을 공격을 이끌었고, 송교창이 18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 타일러 데이비스가 16점으로 힘을 보탤다.

오리온은 제프 위드의 부상 공백 속에 디드릭 로슨이 24점 16리바운드로 분전했으나 팀 패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날 부산 KTL 원정에서 3차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1점 차로 패한 오리온은 2쿼터부터 체력 문제를 드러냈다.

1쿼터에선 막판 한호빈이 22m 버저비터 3점슛을 성공하며 22-18로 앞서갔다. 이는 프로농구 통산 4번째로 먼 거리에서 성공시킨 득점이다. 역대 1위는 조동현(은퇴)의 25m 득점이다. 공동 2위는 김선형(SK)과 김시래(LG)의 23m 득점이다.

하지만 4점차 리드는 2쿼터에 역전 당했다. 오리온이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이자 KCC가 라건아, 데이비스의 연속 득점으로 순식간에 스코어를 뒤집었다.

3쿼터와 4쿼터에도 KCC의 리드가

이어졌고, 양 팀의 점수 차는 계속 벌어졌다. 다급해진 오리온은 3점슛에 집중했으나 KCC를 따라잡진 못했다.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원주 DB가 양동근의 은퇴식으로 치러진 울산 현대모비스 원정 경기에서 82-77로 이겼다.

DB는 개막 후 2연승을 달렸고, 현대모비스는 2연패를 당했다.

DB에선 저스틴 녹스가 28점 10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공격을 지휘했고, 두경민이 19점 3어시스트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팀의 레전드인 양동근의 은퇴식을 기념해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 대신 '양동근'을 새기고 나섰다. 팀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양동근은 이날 중계방송사의 객원 해설위원으로 3쿼터를 함께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후 양동근의 은퇴식과 함께 등번호 6번에 대한 영구결번식을 진행했다.

현대모비스에 끌려가던 DB는 4쿼터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전세를 뒤집었다.

DB는 두경민, 허웅의 3점슛으로 역전에 성공한 데 이어 경기 종료 1분여 전 녹스의 3점슛까지 터지며 승리를 쟁겼다.

뉴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평가전이 열린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양팀 선수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벤투호 vs 김학범호, 2차전 관중 입장

3000명 수용...오늘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에서 판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24년 만의 '형제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2차전에 관중 입장이 허용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020 하나는 행캠 축구국가대표팀v올림픽대표팀 2차전 경기의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11일 밝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A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대표팀은 12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을 치른다. 지난 9일 치른 1차전에선 2-2로 비겼다.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면서 관중 수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대표팀 경기에 목마른 축구 팬들에게 관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중 수용을 결정했다. 관중 수용 인원은 3000명으로

고양종합운동장 동측 스탠드에 배치된다. 티켓 판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실시된다. 모바일 티켓만 판매되며, 가격은 1등석 5만원, 2등석 3만원, 휠체어석 1만원이다.

협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전면 금하고, 육성 응원도 불가하다. 경기장 출입시에는 QR코드 인종, 모바일 티켓 확인, 체온측정, 소지품 검사 등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바일 티켓 소지자는 경기 시작 3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경기장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협회는 이번 스포셜매지 스타리팀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한다. 승자 결정은 양 팀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 뒤 합산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며, 동률시 원정골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뉴스

김태훈,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3년 2개월만에 정상

2007년 데뷔해 통산 4승 달성 이재경, 4언더파 284타 준우승

김태훈(35)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약 3년 2개월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태훈은 11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4개를 쳐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를 친 김태훈은 PGA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2007년 코리아투어에 데뷔한 김태훈은 2013년 보성CC클래식, 2015년 카이도골프 LIS 투어챔피언십, 2018년 동아회원권그룹 부산오픈에

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훈은 이번 시즌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준우승, 부산경남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오르는 등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고, 결국 약 3년 2개월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태훈은 대회 우승상금으로 3억원을 받고,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부상으로 받는다. 또한 2020년 PGA 투어 '더 CJ컵' 출전권과 2021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진출 티켓을 획득했다.

이재경(21)은 마지막 날 3타를 줄여 우승을 노렸지만, 김태훈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재경은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를 기록했다. 6번홀에서 범한 더블보기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준원(34)은 버디 5개, 보기 1



1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태훈프로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로 4타를 줄여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로 3위에 이름을 올렸고, 박성

국(32)은 1언더파 287타로 4위에 올랐다.

"내년 텍사스에 추신수 자리 없다"

MLB닷컴 "내년 39세...적은 연봉에 계약할 여지는 있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추신수(38)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지난 10일(한국시간) 텍사스 구단에 대해 독자 질의응답을 했다.

2021년 39세가 되는 추신수가 텍사스에 남을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가 나왔다.

MLB닷컴은 "2021시즌 텍사스에 추신수의 자리는 없다. 적은 연봉에 계약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2013년 텍사스와 7년간 1억3000만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맺었다. 추신수는 성실하고, 꾸준히 텍사스에서 뛰었지만,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을 올렸다. 나이를 먹을수록 성적도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추신수는 텍사스 잔류 또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팀을 찾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갑이 얇아진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39세를 바라보고 있는 선수를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체는 "추신수의 계약이 끝났다. 추신수는 다음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어한다. 그러나 텍사스는 젊은 선수에게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닉 솔라, 윌리 칼훈, 스캇 하네먼, 엘리 화이트가 좌익수, 지명 타자에 포진했다. 추신수의 자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

NC 포수 양의지, KBO리그 9월 MVP 선정

한달간 25경기 출장해 32타점 만들며 타점 부문 1위 올라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쏘 KBO 리그 9월 MVP에 '미스터 울스타' 양의지(NC 다이노스)가 선정됐다.

KBO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진행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선정된다.

투표 결과 양의지는 기자단 투표(30표 중 20표)에서 1위, 팬 투표(19만 3060표 중 3만1209표)에서 2위를 차지해 총점 41.42를 기록, 36.73점을 기록한 2위 애런 브룩스(KIA 타이거즈)를 4.69점 차로 제치고 처음으로 KBO 월간 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양의지는 9월 한달간 25경기에 출장해 맹활약했다.

9월18일 문학 SK전에서는 만루 홈런을 포함해 7타점을 기록하는 등 9



월 한달 간 32타점을 만들며 타점 부문 1위에 올랐다. 9월24일 창원 LG전에서는 시즌 23호 홈런을 쏘아 올리며 2018년 기록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23개)과 타이틀을 이뤘다. 9월 8홈런을 터뜨린 양의지는 장타율(0.673) 부문 1위와 함께 홈런 부문 2위에 오르며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다.

양의지는 상급 200만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를 받는다.

벤투호, 또 부상...김문환 햄스트링 소집 해제

대체 선수 발탁 않기로

축구대표팀 벤투호에 또 부상자가 나왔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김문환(부산)이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다"고 전했다.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A대표팀에 발탁된 김문환은 전날 1차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부상 악재다. 벤투호에선 앞서 이청



웅과 홍철(이상 울산)이 부상으로 제외됐다. 대신 이현식(강원), 심상민(상주)이 합류했다.

벤투 감독은 김문환의 대체 선수를 발탁하지 않기로 했다.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은 12일 친선경기 2차전을 갖는다.



손흥민, 토트넘 '9월의 골' 후보

사우샘프턴전 첫 골·네 번째 골 후보...케인·라멜라와 경쟁

'손세이셔널' 손흥민(28)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이달의 골' 후보에 올랐다.

토트넘 구단은 10일(현지시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9월의 골'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총 5골이 후보에 올랐으며, 이 중 손흥민의 2골도 포함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20일 사우샘프턴과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혼자 4골을 몰아쳤다. EPL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가 한 경기 4골을 기록한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손흥민의 4골 중 동점골과 네 번째 골이 토트넘 이달의 골 후보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0-1로 뒤진 전반 추가시

간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 동점골이자 자신의 이번 시즌 EPL 첫 골을 터트렸다. 또 후반 28분에도 케인의 도움으로 헤트트릭을 넘어 4골을 완성했다.

토트넘 9월의 골 후보에는 손흥민과 함께 케인, 에릭 라멜라도 올랐다. 케인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스켈디아(북마케도니아)전 헤딩 썬기골로 뽑혔고, 라멜라는 스켈디아전 선제골과 첼시와 카라바오컵(리그컵) 16강전 동점골이 후보로 선정됐다.

케인과 라멜라의 이달의 골 후보는 모두 손흥민의 어시스트였다.